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7 호

2019 년 7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나주·광주>(7/24), <대전·세종>(7/25)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2. UNGC-KJD 2019 반부패 포럼 결과 (6/20)
3.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7/3 - 7/4)

■ 본부 소식

1. 지구 평균 기온 1.5°C 상승을 막기 위한 야심찬 기후 목표에 동참하세요!
2.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차원의 SDG 달성 촉진 위한 행사 런칭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6 –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2. [SDGs 솔루션] 커피잔으로 재탄생한 커피찌꺼기
3. [Goal 16, 8, 9, 10, 4, 12]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NH투자증권

■ UNGC 회원 뉴스

1. 협력회사 '사회적 위험' 미리 체크한다...LG전자, CSR 자가지단 실시
2. 무역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 CSR 뉴스

1. Culture of compliance needed to end graft
2. 정부·대기업 17곳 "포용적 일자리 창출하자" 협력 선언
3. '사회적 가치' 내걸고 체질 개선한 공기업...일자리·환경·안전 잡아... 본연 기능 '공공성' 강화
4. 방위사업청, 첫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청렴방위사업 협의회' 발족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나주·광주>(7/24), <대전·세종>(7/25)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정보(환경, 사회, 거버넌스) 공시 의무화, 사회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동반성장, 윤리경영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 산하의 기업 지속가능성 내재화를 위한 세계 최대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유엔,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확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나주/광주 소재의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회책임경영 최신 동향을 살피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통한 주요 활동 및 혜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7월 24일 (수) 14:00 - 17:00 | 장소: 한전KDN 3층 다목적실
공동주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후원: 광주광역시
대상: 나주 · 광주 소재 공기업, 공공기관 및 UNGC 회원사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4:00 - 14:05	'5	인 사 말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15	'10	참석자 소개
14:15 - 14:2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20 - 14:50	'30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곽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 연구원
14:50 - 15:00	'10	휴 식
15:00 - 15:40	'40	나주·광주 소개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 임아영, 한전KDN 윤리준법팀 차장 - 이세호,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과장
15:40 - 16:00	'20	UNGC 참여 혜택 및 절차 소개 - 김경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16:00 - 16:50	'50	기업별 자사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공유
16:50 - 17:00	'10	Closing

-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gckorea@globalcompact.kr)을 통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김경민 과장, 이서영 연구원 (02-749-2149)

공동주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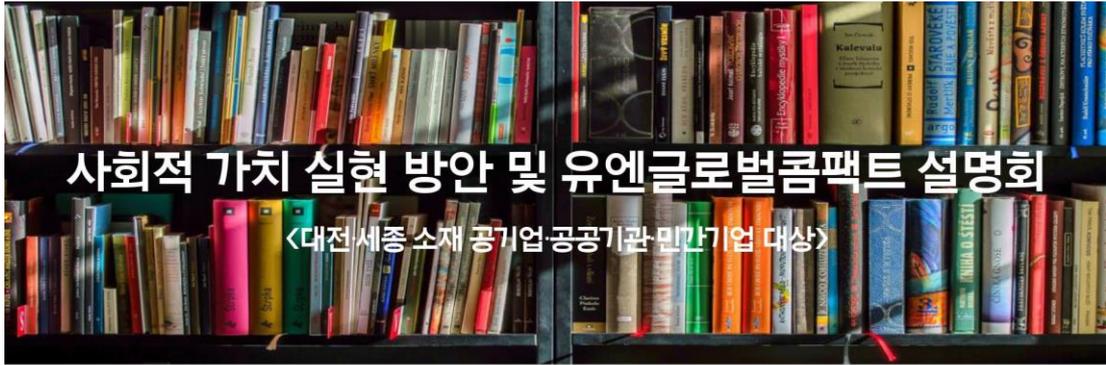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후원:  **광주광역시**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대전세종소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E·S·G 정보 공시 강화, 사회적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인권·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공공조달에 있어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양성평등, 환경, 노동의 질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UN Global Compact,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최신 동향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혜택·가입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대전세종 소재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UNGC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장소: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7층 회의실 (701호)

일시: 2019년 7월 25(목) 14:00 - 17:00

대상: UNGC 회원사 및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30'	등 록
14:00 - 14:05	5'	인 사 말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1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10 - 14:45	35'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4:45 - 15:10	2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15:10 - 15:20	10'	휴 식
15:20 - 16:10	50'	대전·세종 소재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사회적가치 추진 사례 - 노해룡, 한국철도공사 미래혁신실 차장 - 신흥섭,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차장
16:10 - 16:30	20'	UNGC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 임애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
16:30 - 17:00	30'	질의응답 및 폐회

*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 문 의: 임애화 선임연구원 02-749-2150
 *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2. UNGC-KJD 2019 반부패 포럼 결과 (6/20)



지난 6 월 20 일(목)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코리아중앙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19 Anti-corruption Forum'이 주한 대사관 및 기업 관계자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국제투명성기구(TI)와 각국 정부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부패 분야 최대의 민관합동 국제회의인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의 2020년 서울 개최와 민간부문의 반부패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시스템 내재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유권하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는 환영사에서 "지난 2 월 인권과 법에 대한 철학을 갖춘 박은정 위원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대한민국을 보다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는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험이 많은 기업인, 전문가, 외교사절단을 모시고 진행되는 오늘 행사가 더 깨끗하고 공평한 한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은 “전세계 반부패 및 뇌물 수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에서 비즈니스에 있어 투명성과 반부패를 증진시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들은 제재 및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에 투명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본 포럼이 우리 사회에서 투명한 기업 문화를 육성하고 확장시키는데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0 년동안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로, 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패 경험과 인식의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부패문제는 이를 정확히 진단하는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패를 개량적으로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그리고 기관별 자율적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 방지 시스템 평가가 구비되어 있고 부패 유발요인을 측정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을 위한 체계적 진단기구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학계와 함께 청렴수준진단 모델을 개발, 올해부터 청렴기술을 측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본 토론에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정교화 한국사내변호사회(KICA) 컴플라이언스 분과 부위원장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대표변호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경험과 인식의 괴리에 대해 “한국은 경제순위가 높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UNGC 와 함께 국회반부패 포럼을 하면서 실무자들에게 윤리 및 감사와 관련한 대상하는 설문을 했는데, ‘어떻게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들에 책임을 묻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여러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교화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뇌물에 대해 법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시각을 말하자면, 형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도 책임을 물어야 효율적인 반부패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중잣대를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는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타인이 같은 일은 저질렀을 때는 부정부패라는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해소하면서 스스로에게도 투명성과 청렴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도 CPI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CEO의 책임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미국과 한국은 다른 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부 관행들이나 불법행위가 CEO와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기업은 이에 맞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준법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포럼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석범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반부패가 기업에게 있어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법관리시스템을 세우고 리더십부터 반부패의 기틀을 만들어 나간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세션을 정리했습니다.



금번 회의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시스템 내재화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반부패 확산 및 투명한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원문보기\]](#)

3.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7/3 - 7/4)

2018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되었습니다. K-SDGs는 초안 단계부터 192명이 참여해 2030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를 마련한 뒤,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 등 이해관계자그룹이 국민토론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도 산업계를 대표하여 K-SDGs 수립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작업반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양일간 K-SDGs의 각 세부목표, 지표, 선정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K-SDGs 분야별 집중포럼>이 개최됩니다. 산업을 대표하여 K-SDGs의 사회·환경·경제·거버넌스 및 범분야 국제 등 이슈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K-SDGs 분야별 집중포럼>은 작년에 수립된 K-SDGs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18년도 수립된 K-SDGs를 대상으로 각 목표들을 ①사회 ②환경 ③경제 ④거버넌스 및 범분야·국제 총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목표, 지표, 그리고 선정과정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K-SDGs 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작년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한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소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포럼명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분야별 선택 참여 가능)
일시	2019년 7월 3일(수) ~ 7월 4일(목)
장소	서울스퀘어 중회의실 베를린룸(3F) / 접수는 리셉션룸에서 진행
주관	환경부
문의	(주)브랜뷰 070-4531-0501
신청	회차별 선착순 50명 모집 시 신청 마감
신청기간	2019년 6월 28일(금)까지

■ 회차별 일시 및 주제 (포럼명은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시작 30분전부터 접수시작			
1차	7월 3일(수) 10시 - 12시	K-SDGs 사회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선정과정 리뷰	
2차	7월 3일(수) 14시 - 16시	K-SDGs 환경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선정과정 리뷰	
3차	7월 4일(목) 10시 - 12시	K-SDGs 경제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선정과정 리뷰	
4차	7월 4일(목) 14시 - 16시	K-SDGs 수립에서의 거버넌스, 범분야이슈, 지구총협력 등 이행기반 리뷰	

■ 진행 일정

* 1차(사회), 3차(경제)

시간	소요시간	내용
10:00~10:10	10'	개회식
10:10~10:30	20'	기조발제
10:30~11:50	80'	패널 토의 및 플로어 토의
11:50~12:00	10'	전체의견 종합 및 마무리

* 2차(환경), 4차(거버넌스, 범분야이슈, 지구총협력 등)

시간	소요시간	내용
14:00~14:10	10'	개회식
14:10~14:30	20'	기조발제
14:30~15:50	80'	패널 토의 및 플로어 토의
15:50~16:00	10'	전체의견 종합 및 마무리

■ 오시는 길



* 교통이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 해주세요.

■ 대중교통

지하철 (서울역 8번과 9번출구 사이에 서울스퀘어 빌딩 지하 아케이드와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 1호선 서울역 8번출구
- 4호선 서울역 10번출구

버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③정류소	● 1711, 7024, 7016
④정류소	● 503, 151, 152, 150, 507, 505, 751, 752, 750, 501, 506, 504, 750, 502, 500, 162, 149, 202, 421
⑤정류소	● 402, 401, 406, 604, 263, 408 ● 7011, 7013A, 7021, 7013B ● 9401
⑥정류소	● 503, 703 ● 7022, 7017, 262, 261, 201, 103, 163, 701, 704, 706, 603, 702서오, 702용두 ● 9703, 9710
⑦정류소	● 1711, 7016 ● 151, 152, 150, 501, 506, 504, 162, 500, 149, 502

● 1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컵, 텀블러 등을 지참해주세요!

[\[참가신청\]](#)

[\[원문보기\]](#)

본부소식

1. 지구 평균 기온 1.5°C 상승을 막기 위한 야심찬 기후 목표에 동참하세요!

기업, 시민사회, UN 리더들이 지난 6 월 13 일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들에게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필수적인 기여를 촉구하였습니다.

9 월 23 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사무총장의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CEO 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을 기준 1.5°C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IPCC 의 보고서](#)에 기반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촉구는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공개서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서한에는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을 비롯해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르세스(María Fernanda Espinosa Garcés) 유엔총회 의장,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Jayathma Wickramanayake) 유엔사무총장 청년특사, 폴 폴먼(Paul Polman) 전 유니레버 CEO 등 20 명 이상의 리더들의 서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레터에 서명한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Luis Alfonso de Alba) 2019 유엔 기후정상회의 특사는 “다음 10 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고 205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2020 년까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사회 전반에서 전례 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1.5°C 로 설정된 과학기반감축목표를 따르는 비즈니스 리더십은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확장, 반복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BTi 회원 기관인 유엔글로벌콤팩트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11 년 안에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앙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비즈니스 리더와 기후관련 리더가 공동의 행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다루고 지구의 온도를 1.5°C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과학기반감축목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존 덴튼(John Denton)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사무총장, 폴 심슨(Paul Simpson) CDP CEO, 앤드류 스티어(Andrew Steer)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CEO, 마누엘 플가르-비달(Manuel Pulgar Vidal)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리더, 나이젤 토폭(Nigel Topping) We Mean Business CEO, 아난드 마힌드라(Anand Mahindra) 마힌드라 그룹 회장, 할라 토마스도티어(Halla Tómasdóttir) The B Team CEO 등이 본 레터에 서명하였으며, 본문 및 서명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기후행동을 통해 얻는 경제적 기회는 상당합니다. 여러 근거들은 1.5°C 목표를 전략에 통합한 기업들이 세계 경제가 205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선언할 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들로 하여금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통해 검증가능한 과학기반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SBTi 는 각 기업의 최선의 과학적 결과를 반영해 현재까지 약 200 개 이상의 배출 감축 목표를 검증하였습니다. 2019 년 4 월, SBTi 는 기온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를 각 기업이 설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 검증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9 월 23 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민간부문포럼에서는 1.5°C 목표에 기여하는 야심찬 기업 리더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캠페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unglobalcompact.org/OurOnlyFuture

[\[원문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차원의 SDG 달성 촉진 위한 행사 런칭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지역 차원의 SDGs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연속 개최합니다.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campaign'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본 행사들은 민간부문의 리더들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비슷한 경영 환경을 가진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협동과 실제 영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campaign' 행사들은 SDG 달성을 위한 각 국가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세계적 전략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 월 24 일 런던에 위치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영국협회에 의해 시작되는 본 행사 시리즈는 올 하반기 캐나다, 인도네시아, 레바논, 멕시코, 스리랑카(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공동 주최), 탄자니아(케냐 공동 주최)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든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가 주최하며,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이 SDGs 증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국 행사는 SDGs 에 대한 자원 마련 방법을 주제로 하며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마크 무디-스튜어트(Sir Mark Moody-Stuart)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장, 폴 심슨(Paul Simpson) CDP CEO 등의 연사들을 비롯하며 BT,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 HSBC, 유니레버 등의 다양한 기업 리더들이 참여합니다.

오는 7 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포럼(UN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과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주간을 진행하여 유엔 본부에서 기업 리더들이 SDGs 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기여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해당 주간에는 전 세계 70 여개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 대표들과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 전문가 협회, 유엔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s),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 등이 한데 모입니다.

본 행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6 –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How business leadership can advance Goal 16 on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Goal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평화와 정의 추구는 효과적이고 신뢰성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전세계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6년에 폭력에 대한 비용은 GDP의 12.6%에 달했습니다. 살인이 줄어들고 전세계에서 더 많은 이들의 정의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폭력적인 분쟁은 최근 더 증가하였습니다. 몇몇의 심각한 무장 분쟁은 많은 이들을 난민으로 만들며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6년 IMF는 뇌물의 연간 비용이 1.5조에서 2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뇌물과 부패는 기업 성장을 방해하며,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평등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을 형성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법의 지배를 무시합니다. 전세계 40억 명의 인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세계적으로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에선 정부의 효과성, 규제, 질, 특히 민간부문에 적절한 부패 관리가 포함됩니다. 부패와 뇌물 스캔들은 큰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지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더 많은 기업 리더들이 정부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반부패와 뇌물 반대, 평화와 법의 지배 증진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 정부, 기업,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깨끗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법, 규제, 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가능한 모든 경우 정부, 시민사회, NGO와 같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를 보조하여 제도와 법의 지배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경영 과정과 공급망에서 폭력, 학대, 남용,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쟁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국제기구 또는 가능한 경우 정부, 대사관과 정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의 경영이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정부가 잘 운영되도록 SDG 16 번의 증진에 있어 정부의 독점적인 소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16 번을 위한 기업의 리더십은 평화, 정의와 함께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기업의 엔드-투-엔드(end-to-end) 경영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반부패, 인권 보호, 폭력적 분쟁 증식을 위한 노력 강화와 함께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기업은 강력한 공급망 관리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공부문의 기관적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등의 해결책을 분쟁 또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한 곳에 제공하여 신뢰성이 있고 포용적인 기관과 평화구축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1

경영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폭력을 인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업은 경영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폭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해결책을 개발, 이행, 공유하여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부패와 폭력에 대항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선 내부고발, 반부패와 뇌물 금지에 관한 강력한 정책 시행이 포함됩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더 나아가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까지 노력을 확장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강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도구와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리함으로써 SDG 16 번 목표를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수사례

- 직물 회사 A 는 강력한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정 또는 철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기업은 같은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급망 규제와 기준을 지지합니다.
- 가구 회사 B 는 인도의 아동 노동 문제를 위해 유니세프와 협업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고 빛, 가난,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장애, 질병 등 아동 노동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 귀금속 회사 C 는 공급자와의 파트너십에 주의를 기울여, 원석 채광 시 엄격한 노동 및 환경 기준 적용을 보장합니다. 이는 공급망이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하며, 보석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합니다.



BUSINESS ACTION 2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강화와 법의 지배 원칙(rule of law) 존중 및 지원

기업은 정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의 지배 원칙이 사회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폭넓고 건전한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직장과 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역량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사회개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공정한 사회질서가 뿌리내리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수 사례

- IT 기업 A 는 다른 IT 기업과 연계하여 온라인 상의 혐오발언 근절을 위한 행동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IT 기업들은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교육과 혐오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해운회사 B 는 해상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기업이 해상/해운 활동 시 빈번히 접할 수 있는 여러 부패행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상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각국 정부의 공조를 이끌어 냈습니다.
- 국제보험사 C 는 새 펀드를 출시하여 법의 지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법률 제정, 전문인력 양성, 구금자 보호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BUSINESS ACTION 3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와 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기업활동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각 기업은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고, 활동 지역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할 시 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 평화 구축 기관과 협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공유, 정보제공, 물류협력 등이 이에 포함되나 정부의 영역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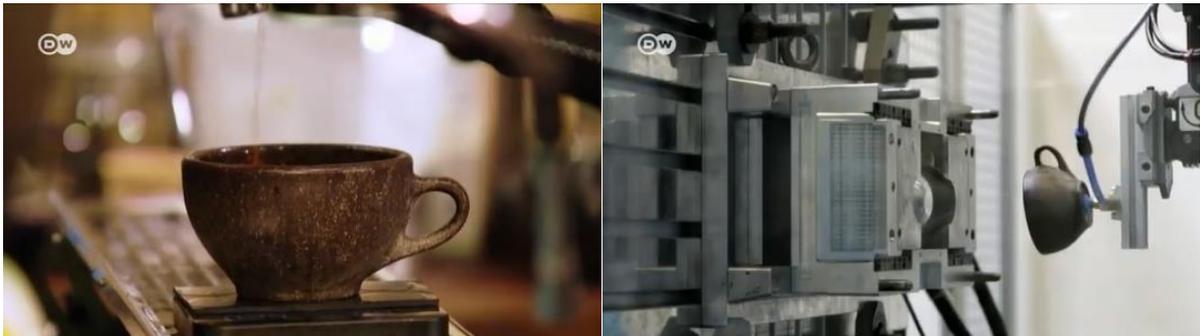
- 해운회사 A 는 해상난민 구호활동을 지원합니다. 지방 정부, NGO,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구조활동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 IT 기업 B 는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난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원확인 서류가 없는 분쟁지역 난민들의 신분확인 및 신원등록을 지원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구호물자 분배 및 전쟁 이산가족 상봉에도 활용됩니다.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커피잔으로 재탄생한 커피찌꺼기

커피폼(Kaffeeform)은 인근 카페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아 생물고분자와 합성하여 튼튼하고 가벼우며 생분해가 가능한 커피잔을 만듭니다.

베를린에 위치한 커피폼 카페에서는 말그대로 잔까지 커피로 만들어진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커피폼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튼튼하고, 가벼우며,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고, 생분해가 가능한 커피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커피잔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해당 커피잔을 사용하고 판매하는 인근의 10 개 이상의 카페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커피찌꺼기는 공장으로 옮겨져 생물고분자와 합성된 후 액체의 형태로 커피잔 모양의 틀에 주입됩니다. 생물고분자는 단백질, 셀룰로스, DNA 등의 생체적 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커피폼은 커피찌꺼기를 단단하고, 조형이 가능하고, 튼튼하도록 만들기 위해 농업 폐기물의 다양한 물질들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단단하게 굳고 나면, 잔은 방수가 되며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튼튼해집니다. 첫 몇 주간은 잔에서 약한 커피향이 납니다. 어두운 흑단나무와 무늬가 비슷하며 커피폼의 커피잔은 2 가지 크기의 실내용 잔과 휴대용 잔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커피폼 커피잔은 베를린 현지의 카페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Why you should care

독일은 2015년 유럽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매년 1인당 6.5kg 이상의 커피를 섭취합니다. 또한, 일회용 커피컵은 재활용이 어려워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커피찌꺼기를 생물고분자와 합성하여 재활용하는 커피폼은 현존하는 일회용품 대신 더욱 지속가능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대체품을 만들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커피찌꺼기 1kg 로 15 개의 커피폼 커피잔을 만들 수 있어 폐기물 저감에 기여합니다.

[\[원문보기\]](#)

3. [Goal 16, 8, 9, 10, 4, 12]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NH투자증권

NH 투자증권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NH 투자증권의 미션인 '혁신적인 금융솔루션을 통해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새로운 금융가치를 창출한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개인 및 기업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가치를 고객, 주주, 임직원, 사회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고객자산 가치 증대(고객만족), 지속적 수익창출과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주주수익 강화),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 제공(구성원 행복),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사회공헌)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	실행전략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고객분석 체계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로 고객관리 강화 - 기업 성장 Life-cycle 전반을 아우르는 파트너 역할 강화
자본시장 Platform Player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al 소싱 및 구조화 역량 강화를 통한 상품공급 확대 - 위험인수 역량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 상품·투자솔루션 경쟁력을 통한 자산관리 영업기반 강화 - 해외 상품 소싱 및 운용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확장 - 강력한 Digital Platform 구축
최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 구축 -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집단 양성
범농협·사회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업인 실익 증대

SDGs 전략 및 사례

비대면 채널 서비스 개선

NH 투자증권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 방문 없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웹, HTS, 스마트폰, 태블릿 PC,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고객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비대면 계좌는 주식매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거래가 가능한 종합매매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HTS(Home Trading System, 홈트레이딩시스템)는 전문 Trading 채널로 각 개인의 니즈에 맞춰 화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Open API*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실시간 자동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채널은 매매, 투자정보, 업무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였고 간편인증과 지문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층 등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콜센터의 모바일 원격지원과 보이는 ARS 을 도입하여 비대면 채널 서비스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장애인 사용을 위한 웹접근성 강화

NH 투자증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저시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운동 장애로 입력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 년 나무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개선 작업을 시작으로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2015 년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및 일반 PC 까지 다양한 크기의 기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 구현을 진행하였고, 이는 "2015 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모바일웹 마케팅부문 금융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NH 투자증권 대표 홈페이지는 2016 년 트레이딩 서비스에 대한 웹접근성 개선 작업 후, 2017 년에 전체 서비스에 대해 웹접근성 개선을 완료하고 2018 년 2 월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인증마크 획득 이후에도 웹접근성에 위반되지 않도록 꾸준히 콘텐츠 관리에 힘쓰는 것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응형웹 :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도록 만든 웹페이지 접근 기법

책임있는 투자 및 운용 원칙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직원, 고객, 주주, 환경과 사회 전체에 금융투자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품 개발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회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책임투자 및 운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상품의 기획에서부터 승인 심사, 고객에게 상품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 자금의 성격, 투자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리서치센터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 시장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및 수익별로 상품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Structuring)하거나 외부로부터 도입(Sourcing)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개발 및 판매의 적절성, 시장성, 리스크 등을 공유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품승인위원회의 상품심의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금융솔루션은 트렌드, 수익률뿐만 아니라 적시성, 안정성과 건전성 등을 모두 검토·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률과 신뢰도를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특화상품

NH 투자증권은 농업, 농촌지원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당사가 추구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공유하고자 농업인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특화상품을 2017 년에 출시하였습니다. (CMA)MMW, (ISA)DLB, (농축협예금)특정금전신탁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매년 지원기금을 조성한 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 년 2 월 현재까지 MMW 는 4,199 억 원, 특정금전신탁은 68,910 억 원, ISA DLB 은 203 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100 세 시대 상품개발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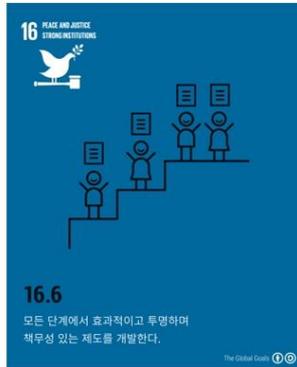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50 년이 되면 65 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100 세를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건강, 자녀교육, 은퇴, 부동산, 금융 투자 등에서 과거와 다른 많은 변화가 예상되나 많은 고객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맞아 은퇴 이후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청과 고객들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100 세 시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금융 투자 상품과 퇴직자 금융 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건강과 여가 등 은퇴생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위한 다양한 월지급식 상품과, 저금리를 대비한 대안 상품 등을 출시하여 최적의 금융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폭넓은 선택권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를 눈앞에 둔 고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16.6은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의 책무성과 투명성은 유엔반부패협약(UNCAC, 2003)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UNCAC 제1조에서는 부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 행정과 공공 자산의 책무성 있는 관리를 명시했습니다. 이후 동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이 공공 행정,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제5조),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설립 및 관리에서 투명성을 증진해야한다(제12조)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해 투명성이 보장되며, 사회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 협약은 공공, 민간, 사회 부문에서 책무성과 투명성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SDGs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SDGs 세부목표 8.10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한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몬테레이 합의(2002)에서는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험과 부채 및 자본 시장을 포함한 개발재원 마련을 다루며, 저축과 생산적 투자를 촉진합니다. 금융기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중개, 투명한 규제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금융기관 역량강화는 특히 중소기업이 지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개발재원" 보고서(2013)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보다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에서 약 4억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에의 접근성 문제가 기업가의 성장을 제한하는 주요 걸림돌입니다.



SDGs 세부목표 9.3은

개도국에서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의 2006년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전체 인구 중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2005년을 국제 소액대출의 해(International Year of Microcredit)로 채택하면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축, 신용, 보험 등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개발재원 보고서(2013)는 개도국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공식 정보 제공이 미비하고, 계좌 및 신용거래에 있어서 표준형식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융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접근가능한 금융을 '포용적' 금융이라고 부르며, 이는 거래 가능한 개인 및 기업들에게 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협력회사 '사회적 위험' 미리 체크한다...LG전자, CSR 자가진단 실시

협력회사 '사회적 위험' 미리 체크한다...LG전자, CSR 자가진단 실시

입력 2019-06-23 10:01 수정 2019-06-23 10:01



- LG 전자는 최근 31 개국에 있는 1600 여개 1 차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리스크 자가진단을 실시함.
- 자가진단은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인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이 공유하는 양식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산업안전, 설비안전, 유해물질관리, 정보보호 등 약 90 개의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함.
- LG 전자는 자가진단 결과가 일정 점수보다 낮은 회사를 '고위험' 협력회사로 분류해 현장실사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CSR 리스크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자가진단 결과,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협력회사의 CSR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위험' 협력회사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현재 '고위험' 협력회사의 비중은 3% 미만이며 지난해에는 세계적 권위의 지속가능평가 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공급망관리 분야 최고(World Best) 평가를 받았음.

[한국경제](#)

2. 무역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부산일보사

무역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기사입력 2019.06.26. 오후 8:08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공감  댓글

요약본   



무역보험공사는 26일 광화문 본사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과 함께 2019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서울시립대 김혁 교수, UNGC 코리아 이은경 실장, 노무법인 세진 김성용 노무사, 무보 이도열 부사장, 박상준 노조부위원장, 류동윤 감사실장, 손지모 사회적가치혁신부장, 무역보험공사 제공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 일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함.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임.
- 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 이도열 부사장이 맡았고 노동조합, 유엔 산하 인권 관계자 등 내·외부 위원 9 명이 인권경영위원회회의를 구성함.
-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하고, 무역보험공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했음.

[부산일보](#)

CSR 뉴스

1. Culture of compliance needed to end graft

Culture of compliance needed to end graft

June 21, 2019



Panelists discuss Korea's ongoing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its obstacles at the 2019 Anti-Corruption Forum on Thursday. From left to right: moderator Park Suk-bum, secretary general of the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You Han-beom, the executive directo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James Kim, chairman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nd Chung Kyo-hwa, vice chair of the Compliance Committee of the Korea In-house Counsel Association. [PARK SANG-MOON]

- Milestones in Korea's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were discussed by panelists at the 2019 Anti-Corruption Forum on Thursday.
- Following a keynote address by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airperson Pak Un Jong, a panel discussion was held between You Han-beom, the executive directo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Chung Kyo-hwa, vice chair of the Compliance Committee of the Korea In-house Counsel Association, and James Kim, chairman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The talks were moderated by Park Suk-bum, secretary general of the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Park opened the discussions by noting the significant progress so far on steering Korean society away from corruption, particular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2016. While in its initial stages the law invited significant resistance, Park noted that it now has wide support from the public.

[코리아중앙데일리](#)

2. 정부·대기업 17곳 “포용적 일자리 창출하자” 협력 선언

정부-대기업 17곳 "포용적 일자리 창출하자" 협력 선언

고용부, 삼성·현대차·SK·LG 등 CSR 담당자 간담회

(서울=뉴스1) 김해지 기자 | 2019-06-19 08:00 송고



(자료사진)2019.4.1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개 주요 대기업 소속 사회공헌(CSR)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음.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자녀를 둔 여성·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 · 현대자동차 · SK · LG · 포스코 · 한화 · GS · 농협 · 한국조선해양 · KT · CJ · 두산 · 효성 · 한국투자금융 · 하림 · OCI · IBK 기업은행 등 관계자가 참여했음.
- 기업들은 취업 취약계층이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회공헌 사례를 공유했으며 SK 는 사회적기업 지원사례를, KT 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취약계층 918 명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운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창출 사례를 발표했음.
- 이날 참여 기업들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차별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뉴스 1](#)

3. '사회적 가치' 내걸고 체질 개선한 공기업... 일자리·환경·안전 잡아... 본연 기능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내걸고 체질 개선한 공기업... 일자리·환경·안전 잡아...
본연 기능 '공공성' 강화

조선일보 | 장지훈 더 나은 미래 기자

입력 2019.06.25 03:01 | 수정 2019.06.25 05:01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A등급 6곳... 토지주택공사, 사회적 가치 1위
대한석탄공사, 또 낙제점... 올해도 S등급 없어

가장 큰 성과 '일자리'... 35개 기업, 9070명 채용

공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생산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재설정하고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일자리' '안전' '환경' 등은 공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됐다. '포용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가 공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역시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2018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공기업들의 명암을 가른 것도 사회적 가치였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서 시행한 첫 평가"라고 강조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가 경평 결과도 좌우했음.
- '2018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종합'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 · 인천항만공사 · 한국남동발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상위 8개 기업' 가운데 6곳이 A등급, 2곳은 B등급을 받음.
- 공기업 평가단에 따르면 평가 대상 공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지표 평균 득점률은 71.5%로 지난해 사회적 가치 지표 평균 득점률(57%)보다 14.5% 높아 공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확대 드라이브를 건 정부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됨.

[조선일보](#)

4. 방위사업청, 첫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청렴방위사업 협의회' 발족

방사청, 첫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청렴방위사업 협의회' 발족

"민관 협력해 청렴을 방위사업 브랜드로 만들 것"

등록 2019-06-26 오후 5:12:52
수정 2019-06-26 오후 5:12:52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26일 주요 방산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렴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부의 청렴성 향상 노력에 민간단체 및 기업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체, 한국투명성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흥사단 등 총 2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청렴 방위사업 민관 협약서 내용을 논의해 확정하고 참여한 모든 기관 및 단체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협약서에는 참여기관의 현실에 맞는 실천 내용을 담았다는게 방위사업청 설명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부패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은 금품제공, 정경유착, 불투명한 경영 등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 방위사업청이 26일 주요 방산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렴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함.
-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부의 청렴성 향상 노력에 민간단체 및 기업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체, 한국투명성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흥사단 등 총 2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음.
- 이날 발족식에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어 청렴 방위사업 민관 협약서 내용을 논의해 확정하고 참여한 모든 기관 및 단체가 협약서에 서명했음.
-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협약서에는 참여기관의 현실에 맞는 실천 내용을 담았다는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임. 우선 공공부문은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부패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민간부문은 금품제공, 정경유착, 불투명한 경영 등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음.

[이데일리](#)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6 월 18 일부터 7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6 월 18 일부터 7 월 1 일까지 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 KEB 하나은행
- 부방
- SK 텔레콤
- 아모레퍼시픽
- LG 화학
- SK
- 롯데제과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KEB 하나은행, 한국타이어, KDB 산업은행, 포스코,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유니베라, 카라반이에스, 삼익전자, 한국전자인증, 제씨콤,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ATUS, 디씨티 오토, 메씨인터내셔널,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코이카,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환경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극지연구소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LG 전자, 우리은행, 두산, CJ 제일제당,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케이티에스테이트, 한국가스기술공사, 케이티셋,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해비타트,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독립기념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